

북한의 신문과 방송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변화하고 있는 북한 언론

19 60년 김일성이 행한 로동당 4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이후 북한 언론은 부정적·비판적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않기 시작했다. 당시 김일성은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근로자들을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언론에서 유독 ‘남조선과 국제 소식’만은 예외였다. 특히 남한 소식만은 부정적·비판적 보도로 일관해 왔다.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런 완고한 북한 언론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남한을 자극하는 용어가 언론 매체에서 사라졌다.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과거 ‘괴뢰 통치배’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남조선 괴뢰 국방부’를 ‘남조선 국방부’ 등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남조선 호전광’이나 ‘원수들을 전율케 하자’는 등의 원색적 표현도 사라졌다. 북한과 관련된 김 대통령의 동정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중앙방송은 김대통령이 8월 22일 남북 교향악단 합동공연 1, 2부 휴식 시간에 허이북 단장을 비롯한 북한 국립교향악단 관계자를 접견한 소식을 23일 오전 6시 뉴스에서 전했다.

더 주목할 변화는 방송 편성과 신문 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앙방송·평양방송과 중앙TV는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6월 13일부터 정규 보도 시간에 북한내 소식을 전한 후 일상적으로 전하던 ‘남조선 소식’을 생략하고 국제 소식을 내보냈다.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도 ‘남조선 소식’면을 없애버렸다. 로동신문은 6월 14일부터 남한·통일 소식을 싣던 5면에 북한내 경제·사회·문화 소식 등을 부분 게재하기 시작하더니 20일부터는 남한 소식을 일절 싣지 않고 있다. 6면 제작의 로동신문은 평소 1·2면에 정치 소식, 3·4면에 경제·사회·문화 소식, 간지인 5·6면에 남한 및 국제 소식을 게재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국방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휴전선 대남 방송을 비롯, 각종 선전 매체에서 대남 비방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비난성 기사를 없앤 대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 6월 23일자는 “민족끼리 싸워서 손해볼 것은 조선 민족뿐”이라는 내용의 논설을 실었다.

평양방송도 6월 28일 남북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의 이해 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통일 실현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민족대단결을 주장했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은 또한 연방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6월 25일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된다”면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언론이 대남 비방보다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편집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월 26일 ‘대화있는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위한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남한 언론의 북한 비판 논조 차단과 연방제 논의 활성화 등을 노린 일시적인 변화 태도를 보이는 데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보도 시각과 내용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 자체는 여러 측면에서 감지된다. 이는 15년만에 재개된 8·15 이산가족 상봉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8월 15~18일 서울 웨라톤워커히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간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난 소식을 이념적인 편향없이 있는 그대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 언론의 이같은 보도 태도는 지난 1985년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당시 다소 냉담하고 간략했던 보도와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특히 조선중앙TV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며 상봉 가족들의 대화를 그대로 내보냈다. 현장을 없이 방송 화면과 아나운서의 육성만 내보내던 예전에 비하면 상당한 파격이었다.

북한 신문, 방송의 기능과 성격

6·15공동선언 이후 보여주고 있는 북한 신문·방송의 신속한 변화는 북한 언론의 독특한 성격과 구조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사회인 만큼 신문·방송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상당히 다르다. 물론 모든 언론 기관이 로동당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점에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와 당적 유일지도체계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북한의 방송 역시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가장 대중적인 보도·선전 및 문화 예술 선전 수단”으로 규정된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이 이같은 원칙 하에서 활동하는 한 헌법에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언론의 자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선전 선동 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문화 교양자적 기능 등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당 정책과 국내의 정세를 대중들에게 해설 침투시키며 당 정책 관철에로 사람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서 일정한 목적 지향성과 방향성, 조직성을 부여하며 계통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북한의 신문·방송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춘 것은 1967년 5월의 로동당 제4기 중앙위원회 15차 전원회의 이후이다. 이때부터 로동당 내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신문·방송도 바뀌어 이른바 ‘주체시대 출판 보도물’,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 보도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 신문·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마르크스 레

닌주의 언론관에서 강조하는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에 덧붙여, 주체의 원칙,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는 원칙,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원칙 세 가지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도 1967년 5월 이후 ‘주체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방송 원칙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방송을 ‘주체적으로’, 즉 ‘우리 식대로’ 한다는 것은 방송 사업을 로동당의 의도와 인민의 사상 감정에 맞게 진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방송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인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양을 실시하는 선전·선동·조직의 수단이므로 방송 내용이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부합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방송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 활동의 선전 및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찬양, 당과 정권의 정책 선전 및 생산 활동에의 주민 동원, 북한의 지위 상대적 부각, 주민의 일체화 및 김정일 우상화에 도움이 되는 음악과 드라마,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전 및 자본주의 비난, 대남 비판과 한국의 국제적 고립 등의 내용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방송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치선전색이 상대적으로 매

우 강하게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장르에 관계없이 김일성·김정일과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거나 주변국을 비난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의 전반적인 특징을 들면 첫째,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편성이 불규칙하다는 점이다. 둘째, 거의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이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타국에 대한 배타성과 내적인 폐쇄성을 들 수 있다. 넷째, 해외 정보가 단절되거나 지연되며 정보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¹⁾

신문·방송의 지도체계

북한 신문·방송의 성격과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전선동 지도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고 체계로 기능하는 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그 하위 구조인 선전선동부는 내각의 문화성이나 출판총국에 지시를 내리고 통제를 가하는 최종적인 언론 통제 기구이다. 당 선전선동부는 당 정치국(최고 권력 기관)의 하위 체계이자 비서국(최고 집행 기관) 직속의 전문(실무) 부서로 조직지도부 다음의 중요성과 권한을 갖는다.

신문의 경우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관철된다. 내각 산하의 출

판총국 신문과도 행정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감시·감독 기관의 구체적인 통제 수단으로는 인쇄 시설·신문 용지 등 물리적 조건에 대한 통제, 처벌에 의한 통제, 취재에 대한 통제, 당에 의한 신문사 내의 간부 및 기자의 임면 등 인사 조치에 의한 통제, 그리고 위로부터의 감시 감독과 아래로부터의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방송사업체계는 중앙당의 선전선동부나 통일선전부에서 방송 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체계' 차원과 체신성이 방송국의 시설·기재의 관리 및 사무적 업무를 담당·운영하는 '내각 체계' 차원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은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통제를 받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방송위원회는 당의 정책과 제반 시책, 국내외 정세를 방송을 통해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당과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이다. 방송위원회가 방송 내용 일체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 모든 방송은 위원회의 검열을 거친다. 방송위원회 산하에는 지역(시·도·군) 위원회가 설치돼 지역의 유선 방송 중계소를 직접 관리한다.

1)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1994. 2), 「남북한 방송 교류를 위한 접근 전략에 관한 연구」 Ⅲ, pp.13~16.

신문·방송의 현황

신문의 현황

북한에서는 「로동신문」·「민주조선」을 비롯하여 각 도에서 발행되는 도 일간지 등 16종의 일간지를 포함해 30여 종의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중앙지로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외에 「평양신문」, 「로동청년」, 「농업근로자」, 「새날」이 발간된다. 주요 신문으로는 「로동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로동청년」, 「로동자신문」, 「농업근로자」, 「조선인민군신문」, 「교통신문」, 「새날」, 「평양타임스」(영문판·불어판) 등을 들 수 있다. 일간지를 제외한 신문들은 거의가 주 2회 내지 주간 신문들이다. 북한 신문들을 기관지라는 측면에서 다시 분류하면 대략 당 기관지(「로동신문」), 내각 기관지(「민주조선」, 「건설신문」, 「상업신문」 등), 각종 사회 단체의 기관지(「로동자신문」, 「로동청년」, 「문학신문」, 「소년신문」, 「체육신문」, 「조국통일」 등), 공공단체 기관지(김일성종합대학의 「대학신문」 등), 지방당과 지방 정권 기관지(「강원일보」, 「량강일보」, 「개성신문」, 「자강일보」, 「평남일보」, 「평북일보」, 「평양신문」, 「함남일보」, 「함북일보」, 「황남일보」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신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것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이며 「로동신문」의 발행 부수는 100만 부 내외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다만 90년대 들어 경제난과 종이 사정으로 발행 부수가 80년대에 비해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동신문」은 매일 6면이고, 「민주조선」은 주 6회 발행인데 4회는 6면, 2회는 4면이다. 신문 발행 횟수나 면 수가 적은 이유는 첫째, 신문들이 사건·사고 등 사회 동정은 일체 신지 않고 당의 정책 노선과 방침 내지 이와 부합되는 현장 르포가 대부분이어서 뉴스량이 적다는 점, 둘째 신문의 활자가 한국의 신문보다 훨씬 작고 광고가 일체 실리지 않아 한 면에 들어가는 보도량이 많다는 점, 셋째 북한의 극심한 원자재 부족 가운데 특히 종이 사정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신문 배포는 남한처럼 신문배달원이 하지 않고 우편집배원이 맡는다. 우편집배원은 당 기관, 국가 기관, 교육 기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사회단체, 문화단체 등 여러 기관들에 집단 배달하는 한편, 인민반장 집이나 당·정부 간부들 집에 가정 배달한다. 인민반장은 몇부 배달된 「로동신문」을 필요한 가정에 돌려읽도록 조치한다.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구독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의 신문 기자 채용은 대학 졸업자들이 경쟁 시험을 뚫고 기자가 되는 우리와는

체도가 사뭇 다르다. 기자 채용은 대체로 김 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신문학과와 여타 대학의 어문학과 졸업생 가운데서 문장력이 좋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한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엄격한 사상 검토와 가정 환경 조사를 거친 뒤에 임명하는 '임명제'가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일단 기자로 채용되면 지방지에서 4~5년간 경험을 쌓은 뒤에 중앙지에 진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기자들은 근무 연한과 능력에 따라 6급에서 1급까지의 차등제가 실시된다. 채용 후 몇개월은 '견습 기자'(수습 기자)를 거친다.

방송의 현황

방송 체계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송 체계(조선중앙방송, 제3방송), 대남 방송 체계(평양 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 국제 방송 체계(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문별 외국어 방송)로 나뉜다.

방송 체계 전체를 장악하고 지도하는 중앙방송위원회는 국내 보도부, 당정책 혁명전통 교양부, 대외방송 편집국, TV방송 편집국, 군사 편집부 등으로 나뉜다. 다만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대변 방송으로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만은 로동당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한다.

라디오의 경우 조선중앙방송은 대내용으로 현재 12개 채널(중파 7, 단파 5)로 하루 총 254시간 30분 방송되고 평양방송은 대외·대남용으로 모두 9개 채널(중파 9, 단파 4)로 하루 총 26시간 30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내용 가운데 약 40%가 대남 소식으로 채워진다. 그밖에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평양 FM 방송이 별도로 평일에는 13시간, 휴일에는 종일(24시간) 방송된다.

TV의 경우 대내용은 우리와는 달리 유럽스타일의 주사선 625개의 PAL 방식으로 방송되는 조선중앙TV방송과 국내외 영화 및 예술 공연 전용 채널인 만수대TV 등이 있고, 대남용으로 우리와 같은 주사선 525개의 NTSC 방식의 개성TV방송이 있다.

북한의 TV 수상기 보급 실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평양은 10가구당 4대 정도이고 지방은 10가구당 1대 꼴이라고 한다. 그나마 대개는 흑백TV이고 컬러TV는 10%내외로 알려진다. 라디오는 350만 대 이상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V의 방송 시간은 평양시 모란봉 구역 전승동에 위치한 조선중앙TV(채널 11)가 평일 오후 3~10시(7시간), 일요일 오전 9~12시와 오후 3~10시(10시간) 각각 방송을 한다. 만수대TV방송은 평양 시민 및 평양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일요일에만 방송되며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4~10시(10시간)에 방송을 내보낸다. 개성TV방송

은 평일에는 오후 5~10시(5 시간), 일요일에는 오전 9~12시와 오후 2~10시(11 시간) 대남 방송을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방송 시간이 정규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종영 시간은 불규칙하다.

조선중앙TV의 하루 방송을 보면 전체 방송 295 분을 기준으로 할 때 영화와 가극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해 선전의 수단으로 예술분야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도 기록 영화·예술 영화·홍보 영화·소개 영화 등과 영화 뉴스 등 형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²⁾

방송은 소리와 언어의 매체여서 언어가 매우 중요한데 북한의 방송 언어의 기준은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한다.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우리 방송과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외부에서 전혀 방송 내용을 알 수 없는 유선 스피커 방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제3 방송으로 부른다. 유선방송 사업은 1955년 착수되어 1975년 10월 북한 전역에 방송망이 구축·완료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은 중앙방송 개국 30주년 기념식(1975. 10)에서 “온나라의 유선방송화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선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하루 22 시간 방송된다.

주요 내용은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녹화 방송한 것이 많은 편이고, 지방 소식을 하루 1~2 시간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적 기념 행사와 같은 3 방송 청취의 날이 따로 있고 이때는 대개 방송을 들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제3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AM 방송과 별도로 유선을 통한 방송망을 구축한 것은 라디오를 외부 소식 유입과 자유사조 침투의 원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성 강조하는 북한 언론

북한 언론이 선전선동자·조직자·문화교양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언론활동의 일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90년대 들어 북한 언론도 재미를 가미해 가독성과 시청률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언론 자체에서도 점차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북한 TV 방송에서 1992년부터 한국처럼 드라마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북한 당국에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드라마를 통해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2) 유영구(1996), “북한의 신문 방송 연구”, 「국사과논총」, 제70집,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TV 드라마는 대부분 인기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전 작가동맹위원장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이 첫 장을 열었다. 이 드라마는 1992년 16부작까지 방영됐다.

이어 남대현의 「청춘송가」가 드라마로 제작돼 역시 관심을 끌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황해제철소에서 겪은 현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새 기술혁신안을 실현해 나가는 젊은 과학자의 사색과 탐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사랑의 우여곡절을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북한 문단에서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면서도 당이 요구하는 참된 청춘상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얻었다. 8월 중순부터 조선중앙TV는 이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스포츠 드라마가 독특한 소재와 파격적인 장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작이 조선중앙TV가 6월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해 방영한 ‘휘날리는 댕기’와 ‘갈매기’이다.

‘휘날리는 댕기’는 여성 예술 체조 선수들의 애환을, ‘갈매기’는 수중 발레 선수들의 얘기를 소재로 삼고 있는데 바로 이같은 ‘소재의 파격성’이 젊은이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특히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여성들의 노출도 과감해서 변화의 바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갈매기’는 수중 발레 선수들의 애환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역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매기’에는 북한의 국가 대표팀인 국가종합 체육선수단이 찬조 출연해 화면을 화려하게 수놓는 등 곳곳에서 드라마 제작의 국가적 지원을 느끼게 한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복무 자세를 주제로 다뤄왔던 북한 드라마의 경향성에 비춰 볼 때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세하나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북한 언론이 남북 언론 교류를 포함한 대외 개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문·방송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북한 언론 기관 대표들과 방북 남측 언론사 사장단은 남북 언론 교류에 합의해 언론 교류의 물꼬를 텃다. 합의문에는 통일과 민족 단합에 도움이 되는 언론 활동 전개, 비방 중상 중지, 언론 분야 교류 협력 추진, 남북 언론 접촉창구 마련, 북측 언론 기관 대표의 서울 방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언론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북측 언론의 실체와 변화의 폭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